MULTIMEDIA SPEAKERS
DYNAUDIO MC15
★★★★★
£ 670

장점
강력한 다이내믹스와 우수한 디테일 해상도, 큰 볼륨, 여유 있는 위치 잡기.

단점
사양 면에서 경량급.

총평
Dynaudio는 정말 드문 작업을 해냈으니, 바로 멀티미디어 스피커 시스템으로 본격 하이파이 사운드를 제공한 것이다.

디테일과 다이내믹스, 드디어 컴퓨터를 위한 본격 하이파이 스피커가 출현하다.

PC 사운드에 박력을 원한다면

컴퓨터 오디오의 급성장으로 CD 플레이어, 앰프, 스피커 구성의 전통 하이파이가 많이 위축되었다. 하이파이 전문업체들이 이 조류에 늦게나마 뛰어들어 새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

MC15는 마음먹고 낯선 시장에 뛰어들기보다 살짝 발만 담근 액티브 스피커다. £335로 개별로 구입, 멀티채널도 가능하다.

"이 스피커는 책상 위에 놓고 벽에 가까이 두어도 사운드가 우수하다."

MC15는 정말 마음에 들지만, Dynaudio의 사양은 성의가 부족하다. USB 입력이 없고 리모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노트북이나 MP3 플레이어의 폰잭을 RCA 케이블로 연결하면 이런 문제들은 금방 잊혀진다.

MC 15의 사운드는 Dynaudio의 팬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 사운드이다. 대담하고 박력 있는 사운드는 The White Stripes나 50 Cent에 안성맞춤이다. 생김새도 멋지지만 목청도 대단해서, 한껏 올려도 사운드가 경직되지 않는다. 디테일은 하이파이 수준이다.

섬세함과 볼륨

멀티미디어 오디오 제품에서 음장이나 저역 다이내믹스 같은 하이파이 특성을 논해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뒷면의 필터 스위치 조정으로 위치 설정도 쉽다. 책상 위 또는 벽 가까이 두어도 언제나 우수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우리는 이 탁월한 성능의 MC15가 대히트를 치길 바란다. 사양만 조금 더 바꾸면 이 시장의 고급품 부문을 호령할 수 있을 것이다.

ALSO CONSIDER ?

AUDIOENGINE A5
★★★★★
£200
November 2007
Dynaudio와 포맷은 비슷하지만 UBS 입력단자를 갖췄다. 가격 대비 대단한 사운드.

FATMAN ITUBE VALVE DOCK/ SPEAKERS
★★★★★
£399
June 2007
어워드 수상 iPod 도크으로 진공관 앰프와 스피커가 딸렸다. 디자인이 경쾌하고 사운드가 우수하다.

iPOD DOCK
INTEMPO RDI
★★★☆☆
£ 130

장점
깔끔한 스타일, 멋지게 숨겨진 iPod 도크 부분, DAB/FM 튜너, 근사한 리모컨, 디테일한 사운드.

단점
사운드가 거칠고 가볍게 들릴 수 있다. DAB 리시버는 강력한 편은 아니다.

총평
모양새나 사양에 흠잡을 데는 없지만, 성능을 보면 이 Intempo는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다.

스타일은 멋지지만 RDI의 음질로는 명함도 내밀기 힘들다.

미모에 성능이 못 미치는 DAB iPod 도크

Intempo는 RDI가 업계 최초의 iPod 도크 겸 DAB/FM 라디오라 선전하지만 지난 호의 Pure Chronos와 Technika DAB407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그래도 iPod 도크에 가까운 이 RDI는 확실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박스에서 꺼내니 Intempo가 한 건 해냈구나 하는 직감이 스쳤다. 깔끔한 글로시 블랙 마감에 슬라이딩 도크는 RDI의 세련미를 더한다. '2.1' 스피커라는 주장은 조금 뻔뻔하지만 두 개의 30w 스피커 뒤에 서브우퍼가 있긴 하다.

"정상 볼륨에 가까워지면 보컬과 기타가 귀에 거슬리게 들린다."

컨트롤 반응도 좋고 리모컨도 다양한 기능을 모두 제어한다. 시계, 알람, 수면과 스누즈 기능도 시계 라디오 같다.

음질은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DAB, FM, iPod 모드를 탐색하자 열의가 시들기 시작했다. 다른 기기에 비해 수신이 안 되는 DAB 방송이 제법 있었다. 음질도 대단치 않다. 적당한 볼륨에서 날카롭고 얄팍하다. 대화 위주 방송과 낮은 볼륨으로 듣는 음악은 깨끗하고 디테일하지만, 정상 볼륨으로 올리면 음성과 기타가 불쾌한 소리를 낸다.

iPod으로 들어도 마찬가지다. 192kbps의 Led Zepppelin의 〈Immigrant Song〉은 긁히는 소리가 나고, PJ Harvey의 우아한 〈Dear Darkness〉를 무손실 파일로 들어도 관심을 끄는 매력이 부족하다.

디자인은 멋지지만 그뿐

토크쇼 방송과 포크 음악만 듣고 디자인에 각종 기능을 원한다면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살짝만 벗어나면 끼어들어도 바로 한계가 드러나니 문제가 있다.

ALSO CONSIDER ?

PURE CHRONOS IDOCK
★★★★★
£100
January 2006
Pure는 RDI보다 훨씬 뛰어난 사운드를 들려주며, 스타일이 화려하지는 않아도 훨씬 완성도 높은 제품이다.

TECHNIKA DAB407
★★★★☆
£70
January 2007
Tesco와 합작문제는 잊고 이 재능 있는 Technika만 보면 탄탄한 만듦새와 침착하고 초점 잡힌 사운드가 돋보인다.

WHF_010208_014.indd 8 2008-02-23 ¿ÀÈÃ 3:26:29